

책만들고 꾸미기의 이론과 실제 규명 디자인 측면 강조한 편집실무 지침서

— 「편집디자인 실무분석」 낸 김두식씨

이 책그사람

책이란 자고로 실한 내용이 떨어지거나 지는 않게 묶고 점잖게 만드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지는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요즘 나오는 책들은 이같이 변화된 생각이 정도가 지나쳐 요란하고 자극적이기까지 하다.

“책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독자에게 얼마나 많이 선택될 수 있는가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책내용을 독자가 쉽게 읽고 빠르게 이해하게 할까, 저술자의 의도가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외양은 보기에도 신뢰감과 미적 만족을 느낄만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요즘의 책 편집자나 편집디자인너들의 한결같은 고민입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잘 만들어야 팔린다”는 생각들은 꽤배한데도 정작 잘 만들기 위해 도움받을 만한 책이 없다는 것이 최근 「편집실무와 전자출판」(타래) 「편집디자인 실무분석」(〃) 두권을 동시에 펴낸 김두식씨(35)의 출판동기다. 앞의 책이 연판출판, 윗셋출판, 전자출판 등 제작방법의 변천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교정·대지작업 등 기본적인 출판메카니즘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면, 뒤의 책은 인쇄의 종류, 제본과 장정, 원색분해, 사진트리밍, 디자인실무 등 보다 상품성 높게 잘 만들어진 책을 제작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책을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참고서가 된다.

이미 2~3년전에 편집학원 수강생들의 교재용으로 「편집실무 1·2」를 펴내고

편집디자인에 관한 이론서 「그리드시스템」을 번역해 내기도 한 그는 이번의 두권의 책에 기왕의 것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특히 디자인부분에 더욱 신경을 쏟음으로써 국내 처음의 편집디자인 실무서가 되게끔 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작에 엄격한 원리에 입각한 본문과 일러스트레이션의 배치, 모든 페이지 레이아웃의 통일성, 그리고 주제표현의 객관성... 즉, 독자가 눈을 통해 받아들이는 각종 정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시각디자인의 원리인 그리드시스템을 엄격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이론에 입각한 실물을 선보인다.

“책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여백처리나 선을 긋는 일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였습니다. 경력자도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대로 익혀라는 식이었지요. 그것이 12, 13년 전 일인데, 아직도 편집디자인에 임하면서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갖고 만드는 경우가 적습니다.”

가령 출판물의 한 페이지 내에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면을 제외한 외곽을 일컫는 ‘마진’은 그 비율에 따라 본문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 독서집중력을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중요한 디자인요소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형편이다.

“이론없이 주먹구구로 만드는 것이 안타까워 자료를 모으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이 이책인 만큼 시각디자인쪽이나 타이포그래피, 색채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들이 ‘각론’ 부분을 더 깊이있게 연구해주길 바랍니다.” — 정혜옥 기자



기호학 전모 집성한 최초의 국내저술 ‘주의’ 아닌 ‘인식방법론’의 성격 강조

— 「기호학」 펴낸 소두영교수

이 책그사람

정치한 방법론에 목말라하던 6,70년대 대학가에서 구조주의는 사회과학에까지 적용가능한 융통성 있는 조류로 받아들여졌다. 그 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포스트구조주의나 해체주의에 이르기까지 구조주의는 분명, 아직까지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문학평론이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원어 그대로의 ‘시니피앙’ ‘시니피에’ 정도는 부담없이 읽어낼 수 있을만큼 익숙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거의 유행에 가까운 외국 사조에의 무분별한 정도라는 비난과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정리작업을 통해 표피적인 이해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론’이 요즘들어 특히 학계 일각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일련의 언어학 관련 저작과 정평있는 고전의 번역서가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두영교수(65, 전 숙명여대 불문과)가 최근 선보인 「記號學」(인간사랑)은, 그의 구조주의에 대한 꾸준한 관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의 이론적 뿌리가 되면서도 그동안 산발적인 소개에 머물렀던 기호학의 전모를 집대성한 모처럼의 국내저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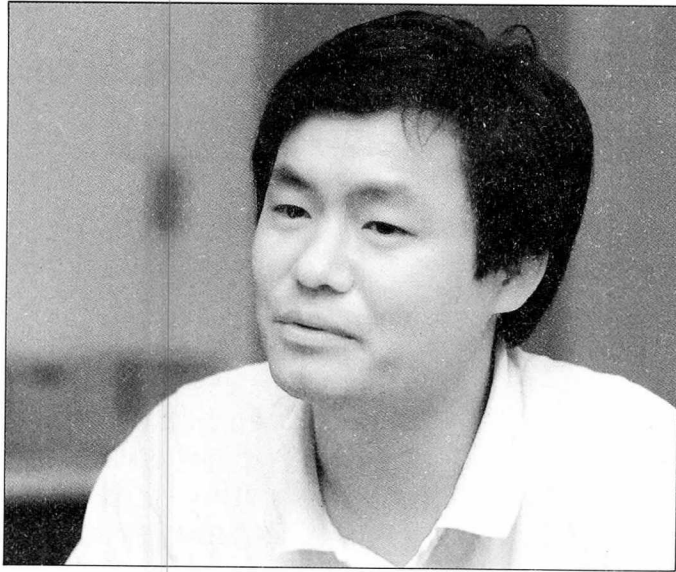
“20세기 초 언어학의 한 지류로 구조주의와 함께 탄생한 기호학은 현재 거의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광범위한 방법론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소교수는, 무엇보다도 기호학을 하나의 ‘사조’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구조주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일종의 인식방법론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념으로 무장한 어떤 ‘주의’라는 식의 규정은 자칫 그 본질을 왜곡시키기 쉽다는 것이다.

기호학을 현대의 ‘신생과학’으로 평가하는 소교수는 이번 저서에서, 소쉬르와 페어스로부터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한 프랑스의 구조주의적 관점과 미국의 실용주의적 관점을 아우르는 기호학의 역사적 흐름에서부터, ‘전달’과 ‘의미작용’으로 대변되는 기호의 기능을 설명한 일반기호학과 제반 분야에 널리 적용되는 개별기호학에 이르는 방대한 기호학 이론을 망라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변동을 기호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기호론’ 또는 ‘문화기호론’이라는 가장 최신의 기호학이론까지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초기 기호학에서는 단순한 언어현상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제는 미술, 음악, 영화 등은 물론 교통신호와 각종 상품광고 등 여하한 형태의 ‘상징’들은 모두 기호학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구체적 예로 자동차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共示의 의미로 확대되어, 자동차 자체가 아닌 그 상표이름이 상징적 기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학졸업 후 20여년간 언론계에 몸담기도 한 소교수는 올해, 또 그만큼의 세월을 보낸 대학강단에서 물러났다. 정년퇴임 뒤 소교수는 학교 근처에 ‘한국기호학연구회’ 사무실을 열고 계속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 자신은 “이제 일선에서 후퇴했다”고 말하지만, 난해하기로 소문난 크리스테바의 기호분석학을 번역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교수다. — 정소연 기자



고통에 가까운 교통문제의 현황분석 '상식적 교통정책'의 수행이 해결방안

— 「교통부장관 귀하」 펴낸 임삼진씨

이 책 그 사람

발 디딜 틈 없는
만원버스, 짐짝처럼
구겨져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목적지까지 실려가야

하는 '지옥철', 눈치를 보아가며 통사정을
해도 탈까 말까 한 택시,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칼을 갈듯 세우는 '똥차라도 내 차'에의 비열.
그러나 어렵사리 구한 '내 차'가 가져다 주는
것은 사나운 입성과 거친 성질 뿐. 이래저래
터져나오는 '문제야 문제'라는 탄식과 분노의
소리는 이제 길거리로 나온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내뿜게 되는 공통된 '입버릇'이다.

글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도,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가나 전문 연구가도 아닌
임삼진씨(32) 역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이다. 굶이
남다른 점을 찾는다면 지난 86년부터
운수노동자들의 문제를 연구하는
'운수노동문제연구소'에서 일해온 그의 이력.
그런 그가 최근 「교통부장관 귀하」(거름)라는
책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몇번이나 마음을 들였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으면서도 메아리 없는
항변이나 억지 추방이식으로 불편부당함에
길들여져가는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는 욕심이 제 마음을 붙들어
매더군요.”

지난 87년 교통관련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 교통문제의 심각성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그는 그동안 신문,
잡지, 각종 연감과 통계, 외국의 사례 등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찾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정리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그저 몸으로
느끼고 짜증으로 내뿜기만 했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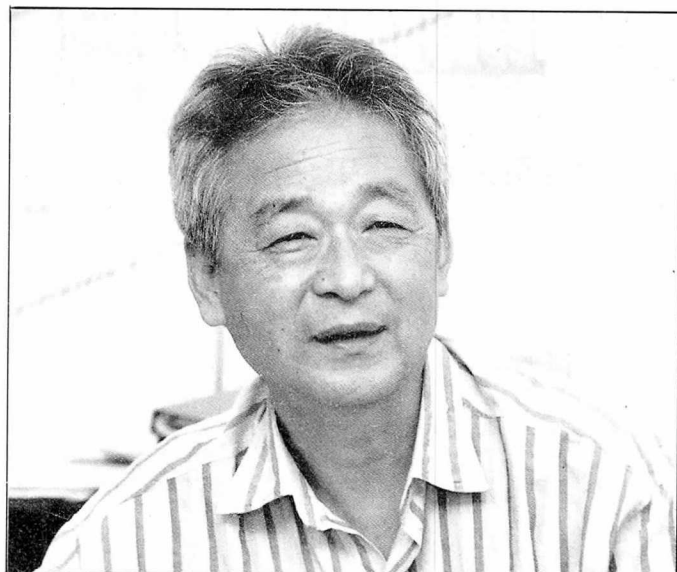
이러한 그의 관심과 노력이 바탕이 된 이
책은 우리나라 교통문제의 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6백건 이상의 사고로 8백여명의
사상자가 생긴다는, 그 스스로도 놀랐다는
세계 최고의 사고·사망률을 비롯, 체중·
공해·위반의 교통문화 등 영킨 실태를 풀듯
날날이 풀어헤쳐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통문제의 현황은 그야말로 '섬뜩함' 그
자체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당연히 터져나올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의외로 명료하다. “결국 초점은 정부당국의
정책부재로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 안녕을 물어야 할만큼 영문도 모르는
채 파헤쳐지는 도로, 신도시 건설 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교통문제, 정치권의
특별한 사안과 맞물리며 남발되는 공약과
원칙없는 단속,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되는
교통예산…… 그의 명료한 대답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 사례는 이밖에도 많다.

“교통문제를 몸으로 느끼는 시민들 누구나
나름의 견해와 상식적인 선에서의 대안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는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상식이 지니는 힘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교통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은
“상식적인 교통정책의 수행”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그 상식은 다름아닌 '인권으로서의
교통권의 회복'이라고 역설한다.

— 박남정 기자



일상의 편린 소중히 가려모은 수필집 장자와 노자 등 동양사상도 쉽게 해설

— 「향산 종이에선 향내나고…」 낸 원종성씨

이 책 그 사람

준제벌급의 튼실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가 펴낸
수필집이라면, 어쩐지
'호사'가 아닌가 하는

성급한 생각이 먼저 고개를 들이밀게
마련이다. 하지만 '동양에레베이터'의 대표
원종성씨(55)의 경우는 그런 선입견을 말끔히
씻어준다.

얼마전 자신의 다섯번째 작품집인 「향산
종이에선 향내나고, 생선산 종이에선 비린내
난다」(월간 에세이)라는 두툼한 수필집을
내용은 그에겐 기업가라는 얼굴 말고도
한두개의 얼굴이 더 있다. 문인협회 부이사장
겸 수필전문지의 편집주간이라는 직함이 함께
따라다니는 그는, 60년대 중반에 「수필공론」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수필가로서의 이력이
붙은 문인이다.

“사고로 입원한 군병원에서의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고 번역을 시작했다”는
원종성씨는, 몇권의 번역서를 내기도 했지만
수필가로 나서고 말았다.

그후 전공이었던 경영학을 살려 기업운영에
발을 내딛은 그는 10여년의 공백기를 갖기도
했지만, 그의 말마따나 “병이 도져” 다시
글쓰는 일을 서둘러 시작했단다.

“물론 기업과 문학이라는 지극히 상반된
세계를 공유한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글쓰기가 마치 밥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야 별수 없더라고요”

5년전부터, 수필이란 장르를 시나 소설과는
달리 아무나 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글쓰기로 생각하는 그릇된 통념을 바꾸기 위해
전문지를 발행하고 있다는 원종성씨는, 이번이
벌써 다섯번째 작품집 출간이라는 게

“한편으로 부끄럽다”고 겸손해 하면서, 경륜이
쌓여야 감동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는 평소의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고 전한다.

그런 그의 「향산 종이에선…」을 들춰보면,
미사여구로 도배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생활주변의 사소한 사건이나 사물에서 비롯된
생각을 차분히 정리한 웅진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공통분모를 찾아 여섯부분으로 나누어
 묶은 이 책에서 유독 눈길을 잡는 것은 역시
일상의 편린이 새겨진 「서울에 사는 새들」과
같은 작품들이다. 이외에도 장자와 노자의
사상을 쉽게 풀어쓴 「장자의 능청」이나
논어의 깨달음을 옮긴 「끝이 황홀한 우담바라」
와 같은 글 속에서 그가 힘주어 말하려 드는
것은,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세상의 보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인 '정'을 잃지 말고
살자는 얘기인 듯 싶다.

자신의 생활이 정반대의 세계를 순간순간
움아다니는 때문인지 다양한 소재를 접할
기회가 많고, 그래서 '소재문학화'를
주장한다는 원종성씨는 일년의 절반을 외국의
호텔방에서 살다시피하지만, 잡기에 능하지
못해 항상 남는 시간을 독서와 글쓰는 데
할애한다고

“건강이 좋지 않아 정적인 취미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림을 수집하거나 난을 모아
가꾸는 게 여가를 즐기는 수단입니다.”

동양란 2백종을 알뜰히 가꾸면서 새벽이면
책상과 마주하는 그의 소원은 “단 한줄이라도
마음에 쏙하니 드는 글을 쓰는” 거란다.

— 최태원 기자